천상의 화원, 만항재	
개 요	· 태백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천상의 화원 만항재의 탐방로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 야생화 탐방 및 숲길걷기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프로그램
해설목표	· 태백산 국립공원의 생태적 우수성을 소개 · 각종 야생화와 숲길 걷기, 운탄 고도의 역사를 알리는 프로그램
대 상 자	모든 연령
대 상 지	태백산 국립공원 내 만항재
코 스	하늘 공원 탐방로 (1.5km)
준 비 물	루페, 해설 교보재, 구급약, 설문지
계 절	봄~가을
소요시간	60~100분
체험활동	숲길 걷기, 숲의 관찰
특성 및 유의사항	· 해설 전 모니터링 반드시 필요 · 대상자와 요구조건에 따른 해설 내용을 달리 한다 · 각종 야생화가 많고 계절에 따라 다른 설명이 요구되며 주변 숲길 탐방, 운탄도로 탐방을 따로 할 수 있다.
해설 시나리오	
1. 만남과 인사말	- 인사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항재 하늘 공원에서 자연 해설을 맡게 된 자연환경 해설사 이영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만항재 소개 만항재는 강원도 정선군과 태백시의 경계에 위치한 고개로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1,330m) 조선 초 개풍군 두문동에서 살던 망국 유신중 일부가 정선으로 이주하여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던 유신들이 두문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곳에 올라 고향을 그리며 소원을 빌던 곳입니다. 망향이었으나 점차 만항으로 불리게 된 지역입니다. 광산의 운탄도로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광산이 거의 문을 닫아 이 길을 이용하지 않는 덕에 이렇게 아름답고 많은 꽃이 핀 천상의 화원이 된 것입니다.
2 운탄고도	- 만항재 정상 1930년 석탄 개발이 시작되어 이 만항재 주변은 광산 개발로 수많은 광부와 가족이 살던 동네입니다. 이 광산에서 채굴한 석탄을

	태백역, 함백역 등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이 도로를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만항재를 중심으로 태백, 정선의 운탄도로는 수백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에 비포장 도로가 보이십니까? 이 도로는 정말 힘들고 아픈 역사를 가진 운탄 도로입니다. 여러분, 차마고도를 아십니까?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교환하기 위해 4,000m 이상 고산 준령의 산허리를 깎아 만든 교역로로 중국의 내륙과 티베트, 네팔, 인도를 잇는 무역로입니다. 차마고도의 무역로를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희생이 따랐을 것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운탄 도로를 우리는 차마고도와 같이 힘들게 만들었기에 운탄고도라고도 합니다. 1962년, 운탄도로를 만들기 위해 약 2,000명의 국토 건설단(1962년 28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로 구성된 단체)이 삽과 곡괭이를 이용, 만항재에서 함백역까지 고도 1,100m 길이 40km 구간의 고원 산길을 만들었고 그 길이 운탄고도이며, 수많은 희생이 함께한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아름다운 천상의 화원은 이렇게 아픈 역사와 함께 한 길이기도 합니다.
3. 푸르름 밑에 감춰진 천하장사	- 하늘공원 탐방로 숲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무나 풀이 자라나는 땅 윗부분과 직접 보이지 않는 땅 아래 지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숲의 지하부분, 즉 땅 표면 아래 흙이 쌓여 있는 부분을 우리는 '토양' 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흙은 낙엽과 마른 가지로 덮여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숲속 흙 위를 걸으면 느낌이 어떤가요? 이런 흙 위를 걸을 때 푹신푹신 하고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카스테라같은 달콤한 빵을 먹을 때 뚝 잘라 잘려진 면을 보면 아주 작은 기포들이 모여 공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보이죠. 숲의 흙 속에도 '공극' 이라는 미세한 공간이 풍부하게 있어 마치 스펀지 같이 물을 많이 흡수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물을 뿌려보면 금방 흡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 같이 숲의 흙이 이런 상태라면 비가 내릴 때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숲은 비가 올 때 물을 빨아드리는 커다란 스펀지가 되는 것입니다. 숲속의 흙 속에는 나무뿌리가 단단히 뻗어 있습니다. 이 뿌리는 나무의 굵은 줄기를 지탱하고,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푹신푹신한 흙은 아름다운 숲을 지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뻗어있는 이 지하 부분에 숲의 진정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4 흙을 만드는 숲속 친구들	- 하늘공원 탐방로 (루페를 이용한 관찰체험) 자 여러분, 발밑의 낙엽과 마른 가지를 들춰봅시다. 대부분 진한 갈색의 부드러운 흙입니다. 더 자세히 보시면(루페 이용) 지렁이와 돈벌레, 참깨 같은 작은 생물이 보일 것 입니다. 이런 지렁이나 노래미, 개미 등 눈에 보이는 생물들은 우리 신발만한 면적에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진드기 같은 생물을 합치면, 수 만 마리 이상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자, 나무 잎을 들춰봅시다. 촉촉하고 구멍이 난 잎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뭇잎을 찾도록 지도) 이 구멍은 지렁이, 노래미, 진드기 같은 작은 생물이 먹은 자욱입니다. 낙엽을 먹는 생물은 자기 체중의 수십배나 되는 많은 먹이를 먹고 또 많은 배설물을 쏟아냅니다. 낙엽 사이나 흙 위에 구르고 있는 크고 작은 알갱이들은 흙 속에 사는 생물들의 배설물입니다. 이 배설물은 토양에 섞여 빗물을 저장하고, 좋은 토양을 만들어 냅니다. (지렁이 흙속동물 80%, 축구장 면적 지렁이 25~125만 마리, 소화 하는 흙 낙엽 등 15t 트럭 1대분 설명) 흙 속에 사는 두더지, 지네, 거미, 개미 같은 생물들은 유기물을 먹거나 구멍을 만들거나 하여 숲의 흙을 푹신푹신 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흙 속의 생물들의 배설물과 활동은 토양의 구조와 성분을 좋게 만듭니다. 숲의 좋은 토양은 생물과 미생물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이로써 토양 속에 사는 생물은 숲의 보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숲이 품고있는 물의 조정으로 홍수를 예방)
5. 꽃과 나무 이야기	- 산상의 화원 앞 (계절에 따라 다른 해설) : 가을 · 당마가목 나무 : 중부 이북에서 자라는 나무로 태백산 국립공원 일원에 많이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나무 껍질은 회색이고 가지는 붉은빛이 강한 자주색입니다. 흰 꽃은 5~6월에 피고, 열매는 10월에 붉게 익습니다. 나무의 성질이 치밀하고 굳으며, 잘 썩지 않기 때문에 정밀 기계의 목재부분, 지팡이 등에 많이 쓰입니다. 한방에서는 폐 결핵에 의한 기침, 천식, 위염, 복통에 효능이 있다 합니다. 꽃말은 '조심, 진중' 으로 봄 새싹이 올라올 때 모습이 말의 이빨처럼 힘차게 솟아난다고 해서 마아목이라고 한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 벌개미꽃 : 잎이 개미를 닮은 꽃이라 하여 벌개미취라 불리고 화려하진 않지만 보랏빛 꽃을 피우는 태백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자라는 야생화입니다. 국화과 여러해살이 풀로 한번 심으면 잘 퍼지고 잡초가 자라지 않아 태백시 도로변에 많이 식재하였습니다. 한국 특산물로 '고려쑥부쟁이' 라고도 부르며 꽃말은 '청초' 또는 '너를 잊지

	않으리' 라고 하는데, 왠지 아련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 짚신나물 : 짚신나물은 장미과로 여러해살이 풀꽃입니다. 이름이 짚신나물인 이유는 씨방에 갈고리 모양의 털이 있어 짚신에 잘 붙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짚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옷이나 짐승의 털에도 잘 붙습니다. 노랗고 작은 꽃이 올망졸망 붙어 있는 잡초풀꽃같이 보입니다. 꽃말은 '감사'입니다. 짚신에 붙어서 멀리까지 운반해 주어 고맙다는 뜻일까요? · 천남성 : 푸른색에서 붉은 색으로 열매가 익어가며 천남성 꽃의 모양은 마치 독사가 머리를 치든 것처럼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꽃을 보면 조선 숙종때 송시열과 장희빈의 악연이 생각납니다. 서인의 분파인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이 장희빈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려 하자 이에 반대를 해 탄핵 당해 사약을 받았고, 송시열을 사약으로 제거한 장희빈은 12년 후 갑술환국에서 서인이 재집권 하며 사약을 받고 사사되었습니다. 사약은 천남성과 투구꽃 등 독초의 뿌리에 비소, 비상을 섞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5백년간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약초를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설 : 옛날 죄인을 처형하기 위해 사형을 처하는데 참수형, 능지처참형 교수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사약은 왕족이나 사대부가 죄를 지었을 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일종의 편법) · 각시취 : 산지의 양지바른 곳에 피는 야생화로 8-10월에 가지 끝에 짙은 분홍, 자주, 보랏빛의 예쁜 꽃을 피웁니다. '연정' 이라는 꽃말을 가진 각시취는 국화과로, 두해살이 풀입니다. 키가 크고 꽃송이가 다발처럼 피어있어 한 번 보면 머릿속에 늘 기억되는 꽃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잎에 털이 있다고 하여 '참솜나물' 이라고도 불립니다. 어린 순을 나물로 먹으며, 한방에서는 고혈압, 간염, 복통, 설사 치료에 이용합니다.
6. 마무리	오늘 여러분은 천상의 화원, 만항재 일대에서 다양한 꽃, 숲이 왜 필요한가 운탄 고도에 얽힌 사연 등 해설을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 석탄 운반도로 때문에 생긴 이 천상의 화원은 여러분이 소중히 아끼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길이 길이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탐방 중 느꼈던 점, 아쉬웠던 점, 개인적으로 하고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상의 화원에서의 좋은 추억과 경험은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 좋은 탐방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개요

해 설 주 제	만항재의 힐링여행		
해 설 소 재	만항재 유래 및 야생화		
해 설 대 상	성인	**해설지점**	만항재 일원
해 설 재 료 (준 비 물)	루페	**소요시간()**	1시간
운 영 자	자연환경해설사 이영희		

해설 시나리오

안녕하세요?
태백산 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안내하게 될 자연환경해설사 이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뵈니 연령이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직장동료분들이신가요?
네~~이렇게 같이 여행오시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실 때에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요, 오늘 하늘에서도 여러분을 환영하는듯이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국립공원에 오셨으니깐 만항재 탐방에 앞서 태백산 국립공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란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답고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곳, 그리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으로서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태백산 국립공원은 2016년 8월 22일에 22번째로 지정 되었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에는 신라시대부터 약 1800년간 하늘에 제를 지내던 천제단이 있으며, 살아천년 죽어천년이라는 4000그루의 주목, 한국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 세계 최남단 열목어 서식지인 백천계곡,그리고 국내최대 야생화 군락지인 이곳 만항재와 금대봉등 다양하고 뛰어난 생태경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함께 국립공원을 탐방하게 되실텐데요, 혹시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면 제게 비상약이 준비되어 있으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구요,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만항재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태백산 국립공원에 속하는 만항재입니다.
만항재는 매봉산, 금대봉, 은대봉, 함백산을 거쳐 태백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중심축이고,태백시와 정선군 영월군이 맛물려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죠.
해발 1330 M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로 올라갈수 있는 포장도로중 가장 높은 고개입니다.
*유래
왜 이곳에는 만항재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옛날 고려말 조선초기에 경기도 개풍군 두문동에 살았던 고려 유신들이 삼척땅으로(궁촌~해양네일바이크) 유배온 공양양을 만나러 왔다가 왕이 죽자 고향으로 가는것을 포기하고 삼척땅과 정선군의 경계인 깊은 산골에서 두문불출하며 살게 되었어요
후에 그들이 두문불출하며 살았다하여 그곳의 이름이 두문동이라 불리게 되었죠.
고려에 충정을 지키던 이들 중 일부가 나중에 정선 땅으로 내려왔는데 정선 땅에서 가장 높은 이곳에서 망향의 설움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제를 올렸던 곳이라하여 '"만항재" 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고향을 그리며 만든 것이 바로 " 정선아리랑"입니다.
*하늘숲 공원
숲으로 이동하실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늘숲 공원입니다.
숲속에 들어오니 공기도 넘 깨끗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느끼시죠?
우리 심호흡 한번 크게 해 보실까요?
간격을 조금 넓게 서 주시구요. 그 자리에서 복식호흡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숨을 깊게, 아랫배가 볼록 나오도록 들이마시고, 제가 셋 셀 동안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후~~하고 조금씩, 길게 내 보내세요 .
다시 세 번 더 하겠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마음이 평안해 지시나요?
코가 시원해지며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 거에요.
피톤치드 많이들 들어보셨죠?
숲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테르펜이란 물질이 있어요.

바로 이 물질이 숲속의 향긋한 냄새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식물이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내뿜는 자연 향균 물질인데요.
스트레스 해소와 심폐기능 강화에 특효가 있답니다.
오늘 집에서 가지고온 고민이랑 마음의 짐 있으시면 이곳에 모두 내려놓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자연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살펴보세요
잔잔하고 예쁜 꽃들이 무척 많죠?
이곳은 사계절 약 천 여종 이상의 아름다운 꽃과 희귀야생화들이 집단으로 자생하는 곳으로 지리산, 덕유산, 곰배령과 함께 천상의 화원 4대 천왕에 꼽힌 곳이기도 합니다.
어머~~우리를 반겨주는 예쁜 아이가 보이네요. 누구일까요?
너무 작아서 안보이시나요? 저기 보라색 꽃.
자세히 보세요.~~여기 루페가 있습니다.
넘 예쁘죠? 꽃 이름 아시는 분 계신가요?
특징이 무엇인 것 같나요? 네~~잔털이 많이 보이죠~~
이 친구는 노루귀예요.
이른 봄에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데 지금 보이는 청보라색 꽃밪침 조각은 꽃잎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는 꽃잎이 없어요. 암술과 수술은 여러 개 있죠?
그리고 흰털이 빽빽이 나요. 노루귀는 꽃이 피고 잎이 나중에 나오는데 잎이 나올 때는 세 가닥으로 말려서 나오며 털이 돋는 모습이 마치 노루의 귀를 닮아서 노루귀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또한 노루귀속 식물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 꽃의 색깔이 다르게 피며 (흰색.분홍색.청보라색) 눈과 얼음을 뚫고 나온다하여 (파설초, 설향초) 라고도 합니다.
봄에 피는 야생화들을 보면 저는 가슴이 막 뛉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작고 가녀린 아이들의 강한 생명력 .대단하지 않나요?
이동하겠습니다.
*운탄도로
요즘은 올레길. 둘레길, 자드락길등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많이들 여행하시는데요, 여러분들도 걷는 것 좋아하시나요? 제가 팁하나 드리려구요.
우리나라에는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제외한 해발 1000 M가 넘는 능선 종주길이 있는데 (2박3일정도) 지리산과 덕유산. 그리고 이곳 만항재가 유일합니다.
매봉산에서 정선 영월까지~~참으로 아름다운 길입니다.
(매봉산1303~ 비단봉1281~ 금대봉1418~ 은대봉1442~ 중함백1505~ 함백산1573~만항재1330~ 백운산1426(카지노 하늘길)~ 두위봉1455~ 질운산1172(마차재))

가는길에 운탄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태백은 광산도시입니다.
앞의 비포장 도로가 보이십니까?
이 도로는 정말 힘들고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30 년 석탄개발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광부와 가족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이 지역에서 캐낸 석탄을 태백역, 함백역등으로 운반하기위해 이 도로를 만들었는데요,만항재를 중심으로 태백 정선의 운탄도로는 수백 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마고도를 아십니까?
중국의 차와 티벳의 말을 교환하기 위해 4000M이상 고산준령의 산허리를 깎아 만든 무역로로 중국의 내륙과 티벳.네팔.인도를 잇는 무역로입니다.
차마고도의 무역로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이 따랐을 것입니다.
앞에 보시는 이 운탄도로를 우리는 차마고도와 같이 힘들게 만들었기에 운탄고도라고도 합니다.
1962년, 운탄도로를 만들기 위해 약 2000 명의 국토건설단(28세미만의 병역 미필자로 구성된 단체)이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 만항재에서 함백역까지 고도 1100 M 길이 40 KM 구간의 고원산길을 만들었고 그길이 운탄도로이며 ,수많은 희생이 함께한 길이기에" 운탄고도" 라고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아픈 역사와 함께한 길이기도 합니다.
*산상의 화원
여기는 산상의 화원입니다.
곧게 뻗은 나무와 많은 야생화~~정말 아름답죠?
야생화가 만발하기 전에는 이곳이 목장이었어요.고한읍에 삼척탄좌가 생기고 광부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기위해 이곳에 목장을 만든 것이었지만 목장관리에 실패하고 허허벌판이 되었죠. 지금도 당시 소들의 사료로 쓰이던 풀들이 가끔 눈에 띕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꽃의 바다 중간에 곧게 뻗은 많은 나무를 볼 수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을 아십니까? 네~~바로 일본잎갈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군락을 이룬 것은 목장이 문을 닫은 후 탄광에 쓰일 갱목을 만들기 위해 고심 끝에 심었는데 이 나무는 빨리 그리고 곧게 자라서 갱목으로 가공하기 쉽기 때문이예요. 하지만 석탄 합리화 사업으로 폐광시기가 생각보다 일찍 다가오게 되면서 잎갈나무가 그대로 자연자원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야생화
여기 귀한 꽃이 보이네요.

이꽃 알고 있는 분 계신가요?
이 아이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희귀식물로 지정되어 있는 한계령풀입니다.
노란꽃이 정말 예쁘죠?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이아이의 뿌리는 마치 콩나물처럼 생긴 긴 세뿌리 끝에 둥근 감자모양의 덩이뿌리가 달려있는데 이것이 본뿌리예요. 북한에서는 산에서 나는 감자라하여 메감자라고 부른답니다.
설악산 한계령 능선에서 처음 발견 됐다고 해서 한계령풀이라는 이름이 되었답니다.
특이한 것은 이 꽃은 성질이 아주 급한 식물이라는 것인데요, 봄에 새싹이 나온다 싶으면 이미 꽃봉오리와 잎을 동시에 달고 있죠.
그렇게 빨리 서두르는 반면 또 열매도 얼른 맺고 지상에서 한두달 봄을 즐기다 사라져 버리는 점도 신기해요.
우리나라 중부 이북의 고산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문득 이 꽃을 보니 나태주 시인의 (풀 꽃)이라는 시가 떠오르네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시입니다.
저는 처음엔 이 시구가 너무 맘에 들어서 꽃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풀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자연의 신비로움을 체험하다 보면 꽃 한송이, 풀 한포기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든답니다.
그럼, 이 지역에는 왜 수많은 야생화가 군락을 이룰까요?
그 이유는 늦가을 북녘에서 발달한 고기압기류가 북방계 식물의 씨앗을 실어 나릅니다. 고기압의 찬 공기는 1월에서 3월까지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와 태백의 고원 상공에 이르는데 이곳에서 동해의 해양성 기후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만나 힘겨루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태백산 일대의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기류에 실려온 씨앗이 땅에 떨어져 화려한 봄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항재 일대에 대한 해설 및 자연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으로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잘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진행개요

해 설 주 제	**천상의 화원 만항재**		
해 설 소 재	만항재유래, 야생화		
해 설 대 상	성인	해설지점	만항재
해 설 재 료	루페, 비상약	소요시간(')	1시간
운 영 자	이영희		

해설 시나리오

태백산 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안내하게 될 태백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이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소개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에서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답고 자연생태계가 살아 있는 곳 그리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우리 태백산은 2016년 8월 22일에 22번째로 국립공원에 지정 되었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에는 신라시대부터 약 1800년간 하늘에 제를 지내던 천제단이 있고 살아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500년된 주목의 군락지가 있으며 한국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와 국내 최대 야생화 군락지인 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하고 뛰어난 생태경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항재 알아보기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만항재(1330)입니다. 만항재는 대덕산,금대봉,은대봉 함백산을 거쳐 태백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중 하나로 태백시 혈동과 정선군

고한읍,영월군 상동읍이 맞물려 경계를 이루는 고개입니다. 만항재는 태백산(1567)과 함백산(1573)을 잇는 고게이며 만항재는 1330M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는 포장도로중 가장 높은 고개입니다.

* 만항재 이름의 유래

함백산 남쪽의 낮은 산등으로 사람들이 넘어 다니는 고개라해서 늦은목이라고도 부르죠. 늦은목이는 한자로 풀이하면 늦은만, 목항 하여 만항재라 하는데 예전에는 부근에 탄광이 많이 있었습니다.(삼척탄좌.정암탄광.강동탄광 등)

만항마을은 1960 년대와 1970 년에 탄광이 개발되면서 광부가족들이 많이 살았으나 석탄을 캐던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야생화를 키우고 돌보며 야생화공원, 함백산 들꽃학교, 산상의화원, 바람길정원, 하늘숲 정원 등을 가꾸는 들꽃마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옛날 만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이야기는 고려말 조선초기로 올라갑니다. 경기도 개풍군 두문동에 살았던 고려 유신들이 삼척땅으로 유배온 공양왕을 만나러 왔다가 왕이 죽자 고향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정선땅 두문동에 두문불출하며 살게 되었어요. 고려에 충정을 지키던 이들중 일부가 후에 남면 거칠현마을로 내려 왔는데 정선땅에서 가장 높은 이곳 만항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망향의 설움을 달랬다고 합니다.그들이 고향을 그리며 만든 것이 바로 정선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만항재의 야생화 축제

아라리 고갯길이라고도 불리는 만항재는 정선에서 태백으로 넘어다니던 고갯길로 지리산, 덕유산, 곰배령과 함께 천상의화원 4대 천왕에 꼽히기도 합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약500여종의 희귀야생화들이 군락을 이루며 아름다운 꽃의 향연을 펼치는 곳으로 낙엽송 숲 사이로 천상의 화원과 하늘숲정원이 조성되어 숲길을 거닐며 야생화 탐방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공식적으로 “고한 함백산 야생화 축제 “가 7월말부터 8월초에 걸쳐 열리고 있으니 시기를 맞추어 방문해 주시면 아름다운 야생화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하늘숲 공원

하늘숲 공원으로 이동 할게요.

백두대간의 중부지역 최고봉인 함백산(1573)중턱의 만항재 일대에는 지금 가을

꽃인 둥근이질풀,오이풀,개미취,붉은토끼풀,까실쑥부쟁이등 다양한 야생화들이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습니다.이 일대가 야생화 애호가들을 통해 유명해지자 야생화 서식지로 조성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고려엉겅퀴

만항재 곳곳에는 정선의 특산물답게 고려엉겅퀴가 제법 눈에 띄네요. 고려엉겅퀴는 흔히 곤드레라고 부르는 국화과 여러해살이 풀입니다.강원도를 여행하다보면 흔히 식당에서 만날 수 있는 곤드레밥에 들어가는 나물이 고려엉겅퀴의 어린 순과 잎입니다. 곤드레밥 먹어 보셨나요? 술에 많이 취한사람을 흔히 곤드레만드레 취했다고 하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 나물의 맛과 향에 취해 정선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려엉겅퀴는 엉겅퀴의 한 종류로 우리나라 엉겅퀴라는 말입니다.

엉겅퀴는 피를 멈추고 엉기게 한다고 해서 엉겅퀴라고 하는데, 그만큼 약효가 좋으니 곤드레 나물밥 역시 몸에 이로운 것은 당연하겠죠?

곤드레밥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야생화 붉은 토끼풀

바닥에는 진분홍색으로 된 붉은토끼풀이 보이네요. 일반적으로 하얀 토끼풀보다 크죠. 얘는 원산지가 유럽이고 가축사료용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고운 야생화가 되었어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외국에서는 "식물 에스트로겐"이라 불린답니다. 토끼풀에 비해 붉은 토끼풀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기후가 잘 맞지 않고 공원같이 자주 밟히는 땅에서는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붉은토끼풀은 초식동물 모두가 사랑하는 풀인데, 갉아 먹힐때는 청산가리 성분의 시안물질(독소)을 방출한다고 해요. 잎을 보시면 하얀 V자 표시가 보이시죠? 바로 이런잎을 가진 개체가 시안물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민달팽이나 메뚜기가 이런 잎을 가진 붉은토끼풀을 갉아 먹다가는 정신착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한바퀴 돌아보시고 지금부터 20분 후에 이 자리로 오시겠습니다.

다 오셨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 태백선수촌

이곳 만항재에서 오른쪽 능선을 넘어가면 태백 선수촌이 있습니다.1330M 에 위치한 선수촌은 대한체육회에서 1998년에 준공 하였으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전지

훈련장으로 함백산아래 자리잡아 400M 의 트랙과 숙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태백분소인 이곳은 선수들의 심폐기능 강화와 지구력,경기력향상등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고지적응의 최적지라 합니다. 이곳은 기능적인면 뿐 아니라 심미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선수촌인데요 ,특히 선수촌에서 바라보는 일출과 일몰이 아주 멋진 장면을 연출합니다.

* 하늘숲 공원

하늘숲공원으로 이동 할게요.
야생화가 만발하기 전에는 이곳이 목장 이었어요.고한읍에 삼척탄좌가 생기고 광부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이곳에 목장을 만든 것이었지만 목장관리에 실패하고 허허벌판이 되었죠. 지금도 하늘숲공원에는 당시 소들의 사료로 쓰이던 풀들이 가끔 눈에 띕니다. 하늘숲공원에는 낙엽송이 대부분이죠. 낙엽송이 군락을 이룬 것은 목장이 문을 닫은 뒤의 일입니다. 탄광에 쓰일 갱목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 끝에 심었는데, 낙엽송은 빨리 그리고 곧게 자라서 갱목으로 가공하기 쉽기 때문이예요. 하지만 폐광시기가 생각보다 일찍 다가오게 되면서 갱목으로 사용될 예정이던 낙엽송들은 그대로 이곳에 남아 멋진 자연을 이루게 되었고 낙엽송 사이로 산책로가 나게 되면서 지그재그로 난 좌우길로 야생화들이 제각기 봐달라고 고개를 내미는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게 되었답니다.

*야생화 진범

귀여운 오리 두 마리가 마주보는듯한 진범이 가장 먼저 반기네요. 진범은 8월말부터 9월 초순까지 깊은 산에 오르면 볼 수 있는 꽃으로 원래 이름은 진봉이예요. 중국에 진봉이란 장수가 죽은뒤 그의 무덤가에 피었다고 진봉이라 부르다가 후에 진범으로 바뀐거죠. 진범의 모습을 루페로 살펴볼까요? 자세히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진범은 날개를 접은 오리의 모습과 비슷하고 꽃에 흰색의 잔털이 있는데요 실제 오리의 모습과 매우 바슷하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답니다. 진범이 무리지어 피어 있는 것을 보면 왠지 작은 오리떼가 한꺼번에 앉아 있는듯한 착각을 느끼게 됩니다. 진범꽃의 엉덩이 오리궁둥이가 맞나요?

*숲속 동식물의 공존(숲의 중요성)

여러분은 산에 오시면 살아있는 나무 외에 죽어서 쓰러져 있는 나무도 볼수 있는데, 이렇게 죽어서 보기 싫은 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는 왜일까요?

이는 처음 숲에 들어오기 전에 말했듯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죽은 나무는 수많은 곤충과 동물들의 집이 되기도 하고,그 곤충들은 작은 동물들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쓰러진 나무에서는 여러 가지 버섯이 나오기도 합니다.죽은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어 다시 토양의 영양분으로 흡수되어 다른 식물들에게 거름이 됩니다.우리는 이렇게 생성된 숲에서 삼림욕뿐 아니라 많은 자원을 얻어 생활에 보탬이 되기도 하지요.
숲이 우리에게 준것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는 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종이,연필,또 집을 지을때 쓰는 나무,가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숨쉴수 있는 산소도 만들어 줍니다.
이처럼 숲은 동식물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중요한 자원인만큼 우리 모두 숲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죠?

* 마무리

오늘 여러분들은 만항재 천상의화원 자연체험을 해보았습니다. 만항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아쉬웠던 점 또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천상의화원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고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기억해주시면 더없는 기쁨이겠습니다. 남은 일정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